

나주 혁신도시 공기기업들에 부는 'ESG 경영' 바람

(환경·사회·지배구조)

농어촌공사, '농어촌애(愛) 그린 가치 2030' ESG경영 선포식 한전 첫 ESG 위원회 발족...2005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aT, 환경변화 적극 대응·안전 먹거리 수급 등 중추 역할 노력

한국판 그린뉴딜(경제부흥)과 탄소중립이 국내외 화두로 떠오르면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기기업들도 본격적인 ESG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줄인 말이다. 2006년 제정된 'UN 책임투자원칙'을 통해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재무적 측면에서 측정하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경영체제는 공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상생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6일 나주 본사에서 '농어촌애(愛) 그린 가치 2030'를 내건 경영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ESG 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초 KRC혁신뉴딜전략을 수립해 그

린 경제와 상생 플랫폼 등 ESG추진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녹색사회, 포용사회, 투명사회를 핵심가치로 농어촌을 위한 ESG경영을 추진한다. ESG경영 부문별 추진전략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먼저 공사는 농어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코전략을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4만t 감축을 목표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하고, 벼 재배 물관리 방식 개선으로 농업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힘을 모은다. 전국 167개 시·군 511개소 농업용수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해 가뭄·홍수·수질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후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사회부문에서는 저소득 농업을 위한 시설물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생활인프라(SOC) 기반을 확충한다. 또 다양한 재능나눔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복을 도우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올린다는 구상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경영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소통채널 120개를 구축해 농어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영기업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식 사장은 "ESG경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공사가 농업분야 ESG를 선도해 새로운 농어촌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이에 따른 모든 성과가 농어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날 김춘진 신임 사장 취임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열며 ESG 경영

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강조되는 상황에서 aT 사장으로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농어촌의 낙후화가 심화되면서 갈수록 흔들리는 국산 농산물의 자립기반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먹거리 문제해결 뿐 아니라 건강·교육·환경 및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등 정책과 연계하겠다"며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aT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기기업 한국전력은 올해 초 ESG 위원회를 신설했다. 한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1차 ESG 위원회를 열고 기구 출범을 알렸다. 김좌관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최승국 이사, 방수

란 이사 등 3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ESG 관련 주요 경영 현안을 심의하고, ESG 경영전략 및 관련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자문한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전반의 방향성 점검과 이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근 한전은 해외 신규 석탄화력 발전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하는 등 경영 전반에 ESG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ESG 분야별 경영활동을 핵심주제로 담았다. 보고서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전환 계획이 실렸다. 한전이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에너지 허브인 '빛가람 에너지 밸리' 사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력사업 특화형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노력도 소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목포해양대 학생들, 한전KDN '전력IT 개론' 듣는다

전력IT인재 육성 협약 6월 초까지 온라인 강연

한전KDN이 목포해양대학교와 손잡고 전력 정보통신기술(IT) 인재를 키운다. 한전KDN은 목포해양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력IT인재 육성을 위한 '전력IT 개론' 강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강의는 현장 실습과 강연으로 구성됐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전KDN의 '전력IT 개론' 강의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6월 초까지 석 달 일정으로 진행된다. 목포해양대 수강생들은 전력거래, 송변전, 전력거래, 정보보안 등 전력IT 8개 부문을 배운다. 강사진에는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한전KDN 직원들도 포함됐다. 한전KDN과 목포해양대는 지난 2015년 산·학 협력 협약을 통해 상호 간 교육 및 산업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교수와 학생들의 현장 연수와 연구 지원 등 지식 교류 네트워크를 통한 전력IT인재 육성을 지속하고 있다.



한전KDN 강사가 목포해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력IT 개론' 강의를 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한전KDN 관계자는 "지역인재 육성 및 전력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 대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전KDN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과 대학생 홍보대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25개 신협, 종합목표관리 우수



장성신협 경영대상 등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20 종합목표관리 시상식"에서 장성신협(이사장 전정욱)이 경영대상을 받는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25개 수상 조합을 배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지역별 시상식을 진행했다. <사진> 장성신협이 경영대상을 받고, 경영최우수상에는 강진신협(이사장 문경환), 장성우리신협(/ 양선숙), 화정신협(/ 김성숙), 목포우리신협(/ 김애란)이 이름을 올렸다. 경영우수상에는 광주문화신협(이사장 고영철), 나주신협(/ 윤성철), 서광신협(/ 김승록), 순천제일신협(/ 김오수), 광주하남신협(/ 나대상), 영암신협(/ 박영실), 광주동부신협(/ 신권연),

별교신협(/ 김정수)이 수상했다. 경영장려상은 광주원광신협(이사장 유영희), 방림신협(/ 정기수), 광주여흥신협(/ 김종복), 중흥신협(/ 이옥규), 광주미래신협(/ 진귀수), 우산신협(/ 김재일), 여주제일신협(/ 김성수), 광양중앙신협(/ 이승안), 샘신협(/ 채선필), 광주교회신협(/ 윤석규), 나주이화신협(/ 김종원), 광주YWCA신협(/ 정경자)에 돌아갔다. 종합목표관리평가는 신협의 수익성 향상, 건전성 제고,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의 핵심평가지표를 측정해 계량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문규 본부장은 "지난 한 해, 신협을 위해 열정을 다해 애주신 신협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원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안정적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업 실패 전남 소상공인들, 대출 문턱 낮아진다

농협은행·전남신보 업무협약

사업에 실패한 전남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펼쳐진다.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와 전남신보보증단은 16일 무안군 삼향읍 농협은행 전남본부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사업에 실패하거나 도산한 전남 소기업·소상공인은 전남신보의 재보증을 받고, 농협은행 대출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남신보가 대위변제 한 채무자 중

사업 재기 의지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농협은행은 '성실 실패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전남신보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료 연 1.0% 고정요율을 지원한다. 해당 소상공인은맞춤형 재기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혜택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이고은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 원장 | 교정전문의 이기현 | 김고운

www.lovelyline4u.com

www.ci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안영근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병원장 정종훈

■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검진센터 062)220-3030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광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약사 내과전문의의약사
이강수 홍순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침담종합병원

CHEOM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원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담중앙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 홈페이지 : www.cheomdanhosp.co.kr